

速記界

第 21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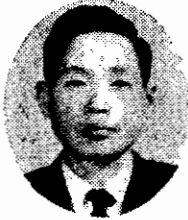
速記界 目次 第21號 1980.12

2	《卷頭言》 庚申年을 보내면서	副會長 鄭源道
	■ 特輯：速記論壇	
4	各國議會會議錄의 樣態	理事長 金仁寧
8	速記實務向上을 위한 考察	河良培
13	企業經營에 있어서 速記의 寄與度	柳舜台
17	* 隨筆 — { 영근 이삭이 되어	楊澈在
19	秋 想	鄭珠鉉
21	第17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資格審査委
22	㉠ 用語解説	研究委員會
25	소식란	渉外部
27	第13回 定期總會	
31	會務報告	總務部
3	島山の, 同胞에게 告하는 글 중에서	
7	古典의 섀터	
12	적극적 사고방식 중에서	
16	速記料金案内	
18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20	會費納付案内	
26	原稿募集	
32	編輯後記	

題字：海汀 朴泰俊

〈卷頭言〉

庚申年을 보내면서



副會長 鄭 源 道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國內外的으로 多事多難했던 庚申年을 보내면서 그간 많은 變化들이 우리 周圍를 맴돌면서 영향을 끼쳐왔던 분주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10.26 以後 거듭하여 뒤바뀌어 왔던 變化의 衝激을 堪耐하지않을 수 없었던 우리 社會는 이제 第5共和國 憲法의 公布와 더불어 새 歷史의 章에 進入함으로써 그 船首는 힘찬 來日의 民主福祉國家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變動의 소용돌이는 우리 協會運營에가지도 밀려와 待望의 80年代에는 여러모로 더욱 熱과 誠을 다해 보고자 했던 努力의 마음가짐에 아무런 結果도 없는 아쉬운 한해가 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本人도 協會 創立以來 勞苦를 아끼지 않았던 몇몇 會員과 함께 牽職하던 일터를 떠나게 되어 그로인한 錯雜함과 서운한 마음 그지 없으나 有能한 젊은 분들과 任務를 交代케 된것을 한편 다행한 일로 自慰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급속한 時代의 發展에 副應하여 記錄業務의 尖端을 걸어야 한다는 적지않은 責任을 나누어 가지면서 同苦同樂하기 30餘年의 순탄치 못했던 過程에서 비록 速記界를 떠난 이들도 있지만 그간 우리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이 좀더 아름다운 人和의 造성과 보다 큰 團結을 위해서 때로는 讓步하고 때로는 督勵하면서 聲援을 아끼지않는 가운데 꾸준히 成長 發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수많은 날의 아픔과 試鍊을 견디어 내야만 꽃을 피우고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協會도 앞으로 會員 여러분들의 能動的 參與와 忍耐로써 激浪을 헤쳐나가야만 더욱 빛나는 發展의 途上에 나서게 되리라 確信하는 바입니다.

앞서 時代의 發展에 副應해야 할 記錄人의 使命을 言及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앞에는 改善 發展시켜야 할 餘地가 폭넓게 남겨져 있으며 또한 開拓해야 할 分野도 큰 課題로 남아 있습니다.

會員 여러분!

80年代의 出發에 있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친 물결을 民族의 슬기로 헤쳐나가

는 이때에 우리도 雄飛의 나래를 펼쳐서 튼튼한 成長을 이룩하여 後輩들에게 튼튼하게 成長한 協會를 물려주도록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各自 몸담고 있는곳은 다르더라도 좋은 일에는 함께 웃고 곱은 일엔 힘을 북돋아주는 아량과 寬容으로 앞장서고 밀어주는 美德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는 소박한 眞理인 會者定離物 새삼 吟味하면서 期滿了되는 全任員을 代表하여 한마디 담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來年度 協會事業은 例年과 별다른 內容으로 새로 맡게 될 任員들께서 좀더 進取的인 思考로써 그 어느해보다도 盡善盡美한 協會運營의 기쁨이 마련되기를 期待하면서 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幸福과 榮光이 깃들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물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사람은 물론 나 대한 사회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는 것이 한 이상스러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인이 된 자는 누구든지 명의상 주인은 다 될 것이되 실상 주인다운 주인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점령하고 어느 민족 사회든지 그 사회에 주인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하고 그 민족이 누릴 권리를 딛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 민족 사회에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하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 없고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여러분은 각각 우리의 목적이 이 민족 사회에 참 주인인가 아닌가를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旅客인데 주인과 여객을 무엇으로 구별할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여객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우리 민족 사회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뿌리는 때도 있고 愴한 말을 타하는 때도 있고 슬픈 눈물과 분한 말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몸을 위태한 곳에 던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이렇다고 주인인 줄로 자처하면 오해입니다. 지나가는 여객도 남의 집에 참편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거나 愴음을 타하거나 그 집의 위급한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투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아니요 개인 때문에 한때 그러고 말 뿐, 그 집에 대한 영원한 책임심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抱한 주인입니다.

(島山 安昌浩의 同胞에게 告하는 言, 主人인가 旅人인가 中에서)

各國議會會議錄의 樣態

- 發刊·頒布 및 版權問題를 中心으로 -

理事長 金 仁 寧

序

各國議會의 會議錄作成을 위한 速記制度의 發達 過程은 1975年度에 西歐諸國의 議會制度 調査研究次 各國議會를 視察한 바 있는 本協會 金鎮基指導委員의 寄稿(75. 9. 10月 國會報 148 號)에서 詳細히 言及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會議錄의 發刊과 頒布 그리고 그 版權問題를 IPU 事務總長協會가 各國으로 부터 보내온 設問資料를 綜合 整理하여 同協會 機關誌인 Constitutional and Parliamentary Information 에 收錄한 內容을 要約 우리나라의 경우와 比較하



여 「速記界」에 남겨두고자 한다.

I. 會議錄의 發刊問題

現在 우리나라의 會議錄 發刊은 自體 直營의 印刷施設이 없으므로 當年 마다 民營 印刷所와의 年間契約으로 發刊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伊太利·아일랜드·스페인·유고슬라비아·체코등도 議會와 契約을 締結한 民營出版社가 發刊하고 있는데 특히 덴마크에서는 그 民營 出版社의 一部署가 議會 建物內에 자리잡고 있다.

그외에 大部分의 나라들은 政府直營의 出版所에서 印刷되고 있으며 北반은 議會 直營의 印刷所에서 印刷 發刊하고 있는 바 各國의 會議錄 發刊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 別	草 稿 會 議 錄	正 規 (式) 會 議 錄	綜 合 發 刊
韓 國	-	(本) 臨時會議錄(翌日) 臨時配付後 3日內 (常) 原稿引渡後 7日內	製 本
日 本	-	速記錄(1~2日)	-
美 國	-	日刊會議錄(翌日)	隔週會議錄製本

英 國	-	日刊會議錄(翌日)	週刊會議錄製本
실 론	-	" "	製 本
스 페 인	-	" (2~3週)	-
濠 洲	-	日刊會議錄(翌日)	週刊會議錄製本
아 일 랜 드	-	" (2日)	製 本
和 蘭	-	" (2~3日)	"
유 · 고	스페인실會議錄	" (5~8日)	"
이 스 라 엘	"	-	週 刊 會 議 錄
카 나 다			
下 院	스페인실로된것(報道用)	日刊會議錄(翌日)	製 本
上 院	동사한것	-	-
印 度			
下 院	-	스페인실會議錄(翌日)	-
		日刊會議錄(10日)	-
上 院	-	스페인실會議錄(翌日)	-
		日刊會議錄(2~3個月)	-
체 코	스페인실會議錄	印刷會議錄(數個月)	-
덴 마 크	-	" (1~2日)	週 刊 會 議 錄
		最終 " (3~5個月)	-
핀 랜 드	스페인실會議錄	印刷所校正會議錄(5~6週)	製 本
		最終會議錄(2~3個月)	-
프 랑 스			
國民議會	스페인실부레틴	會 議 錄(翌日)	製 本
上 院	스페인실會議錄	-	-
오 지 리	拔萃會議錄	日刊會議錄(1~3日)	-
네 팔	"	日刊스페인실會議錄(3日)	製 本
벨 지 움	-	拔萃會議錄(翌日)	"
		會 議 錄(1週)	-
룩셈부르크	-	拔萃會議錄(1週)	製 本
		會 議 錄(2~3週)	-
아랍共和國	拔萃會議錄	" (2日)	製 本
伊 太 利			
下 院	-	拔萃會議錄(翌日)	製 本
		暫定速記錄(翌日)	
		最終速記錄(10~15日)	
上 院	暫定拔萃會議錄	拔萃會議錄(翌日)	-
		速記會議錄(1週)	

II. 頒布問題

各國 共히 會議錄을 發刊하는 即時院 및 議員과 政府 各機關, 國內外圖書館에 依例의으로 配付하는 同時에 政府 刊行物販賣센터 및 書店을 通하여 販賣함으로써 一般 國民은 누구나 自由롭게 購讀할 수 있으나, 다만 尼喃 아랍共和國만이 우리나라와 같이 一般 頒布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지리는 發刊費用을 販賣代金에서 充當하고 있는데 主要國의 配布狀況을 보면 모든 國家에서는 議員들에게 一部씩 無料로 配付하고 있으나, 濠洲에서는 各 議員은 會議錄을 無料로 받을 수 있는 35人的 個人이나 團體를 指名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0人은 販賣되지 아니하는 日刊會議錄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下院議員은 16部 長官과 上院議員은 25部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美國에서는 下院議員은 法律에 의하여 68部, 上院議員은 100部를 받을 수 있는데 指定된 選舉區民들에게 直接 郵送되게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前議員에게도 郵送되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에서는 拔萃會議錄이 投票權이 있는 모든 主婦들에게 無料로 配布되므로 그 配布先은 國內 日刊紙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와같이 無料로 配布하는 경우 外에 販賣로써 會議錄을 一般에게 普及시키는데 대하여는 어느나라는 特別한 措置는 取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會議錄의 販賣를 商業廣告에 의하여 促進시킬 수 있는가의 與否, 그리고 議會에서 討議되는 問題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度에 따라 같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잠깐 提及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現在 一般 頒布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市中 一般에 頒布된 後의 保安上 管理 및 任意轉載時的 規制問題등 國家次元에서의 特殊與件에 處한 現實的인 立場과 會議日數에 따라 收支關係가 左右될 것이므로 收支面에 敏感한 業者(代行하는 경우)들이 이에 應할지가 問題視되어 어려운 實情이나 將次 檢討해 봄직한 일로 생각된다.

III. 版權問題

版權이라 함은 著作權法에 의하여 圖書를 出版하여 그 利益을 專有하는 權利를 말하는데 出版權者는 特約이 없는 限 出版權 設定日로부터 6月 以內에 著作物을 出版하여야 하며 著作物을 계속하여 出版할 義務를 지는것을 말한다.

版權에 의하여 保障된 資料는 누구든지 그것을 利用하는에는 版權所有者의 許可를 얻어야 하며 때로는 그 利用을 許可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美國, 日本등 大部分의 나라들은 會議錄의 版權所在가 不分明하거나 根據規定이 없으므로 學論되지 않고 있으나 체코·印度(下院)·네판·아랍共和國 및 유고에서는 議會 또는 그 議會의 一機關에 주어져 있으며,

오지리·벨지움·캐나다·실론·민마크 핀란드·프랑스·英國등에서는 아일랜드의 國立出版局(the Stationary Office)과 같은 政府의 一機關을 通하여 政府에 賦與하고 있는 바 版權이 한 機關에 주어지는 나라에서도 新聞 其他 報道機關에서의 會議內容의 報道 및 이에 대한 個人的 적절한 引用報道는 自由롭게 許容되고 있다.

특히 유고에서는 報道에 대해서 無料로 許容되고 있는바 이는 그 報道가 眞

實하고 그 내용이 議會의 活動을 最大
限 公正하게 報道하는 경우에는 民主發

展에 最大限의 利益이 된다고 認定하고
있는듯 하다.

古典의 샘터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富와 貴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거기에 安住하지 않는다. 貧과 賤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仁을 떠나서 어찌 명예를 이룩할 수가 있을까? 군자는 잠깐 동안이라도 仁을 어길 수가 없으니 다급한 때에도 반드시 이에 처해야 하고 얻어지고 넘어지는 사이에도 반드시 이에 처해야만 한다」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不以其道 得之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以惡也 不以其道 得之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자리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벼슬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알려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힘쓸 것이다」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子貢이 물었다 「한마디로 평생토록 행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恕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생각해야 할 일이 아홉가지가 있다.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표정은 부드럽게 하기를 생각하고 태도에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에는 성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에는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외문이 있는 일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화가 났을 때에는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게 될 때에는 義를 생각해야 한다.」

(孔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 論語에서 -

速記實務向上을 위한 考察

河 良 培

I. 序 論

韓國速記界에서 속기가 朴如日씨에 의해 1909年 최초로 발표된 이래 解放後 속기의 時代的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創案者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理論的 體制를 갖춘 技術로서 모습을 갖추어 議會記錄의 重任을 담당하고 社會各界의 수요에 副應해 온지도 어언 30餘年이 지났다.

대저 速記의 機能이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音聲을 點과 線 그리고 각종기호로 運筆하는 까닭에 高度의 技術과 經驗이 隨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속기 창안 이래 實務향상을 위해 속기법식 개량과 속기사의 자질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錄音器라고 할 수 있는 속기사가 있을리 없고 防音裝置가 철저한 완벽한 회의장 등이 없으므로 언제나 약간은 불비한 가운데 속기사의 力量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충실한 속기를 위해서는 우수한 速記法式, 유능한 속기사, 양호한 속기분위기 등 3대조건이 具備되어야 하나 여기에서 기존 속기법식의 개량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속기환경문제도 일단 주어졌 조건이므로 可變性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속기실무를 향상시키는데는

速記力 증대를 위시한 속기사 자신의 자질향상이 가장 要諦가 될 것이다.

따라서 諸般 速記特質에 대해서는 「速記總覽」 등에 상세히 記述되어 있으나 本考에서는 실무에 임하는 속기사가 부딪치는 문제를 중심으로 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속기를 잘 하려면 속기를 들려싼 諸般與件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속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純粹속기적인 면, 속기를 補助 지원하는 부분을 附隨속기적인 면으로 나누고 이어서 속기인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純粹速記의인 面

속기사가 훌륭한 회의록을 만들어 내야 記錄당시에는 발언자의 主張이나 思想을 널리 전달하는 媒體가 되고 後世에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발언의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기를 잘하려면 해박한 지식과 속기력 翻文力 등이 밑받침되고 상호 補完되어야 한다. 이는 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種子, 기름진 땅, 알맞은 기후조건 등

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속기하는 작업을 세분해 보면 發言者의 음성이 音波를 타고 속기사의 귀에 도달하면 이를 즉각 이해하여 속기문자로 운필하며 이를 다시 一般文字化함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각단계에서의 부분작업을 완벽하게 하면 전체 속기가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속기를 비롯되게 하는 발언자의 음성이 천천히 정확 명료하게 들리면 속기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으나 보통은 발언자의 個性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語速에 차이가 있고 거기에다 東西古今의 古典과 時事問題 등을 인용 발언하기 때문에 속기사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올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거기에 처음듣는 難解한 말이라도 나올라치면 차후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가. 發言速度와 速記力

속기과정에서 속기사가 부딪치는 제일 첫문제는 우선 發言速度의 문제이다. 자기의 速記技術이상이므로 말을 빨리해서 발언을 빠뜨리거나 미처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적으면 翻文時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되므로 속기사는 高速發言에 대비해 언제나 충분히 받아 쓸 수 있을 정도의 속기실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최소한 專門速記士라고 하면 속기협회 1級자격증을 가질 것은 물론이고 實務속기사로서 경험은 5年以上은 되어서 언제 어느 종류의 회의에 임해서도 혼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聽取力

흔히 初年生의 경우 회의장에 들어가

면 우선 평상적인 말이 아닌 난해한 용어가 자주 나와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는 聽取力에 관한 문제로 예를 들면 農産物의 신품종 이름이라든가 新造語의 국어나 토속적인 말이 나오면 빨리 이해가 안되어 핵심되는 말을 놓치기 쉽다. 여기에서 속기력을 뒷받침하는 청취력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다. 해박한 知識

이 청취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多方面에 넓은 지식을 갖고있을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原單位 農安基金 省力化등 사회변천에 따른 新用語 출현과 時事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취력에 있어 注意를 요하는 것은 漢字語에는 同音異義語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先導와 善導, 實效와 失效, 世代와 世帶등 이를 적절히 구별해서 써야함은 물론이고 또한 保全과 保存, 運營과 運用, 安定과 安全등 類似音을 文脈에 맞게 정확히 문장으로 옮겨놓으려면 속기사는 평소에도 풍부한 어휘력을 기르고 동음이의어 유사음에 대해서까지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翻文力

속기실무에 있어 발언을 청취해 속기를 했으면 다음에는 翻文을 해야 되는데 가끔 잘 써놓고도 풀리지않아 애를 먹고 또는 잘못 번문하는 誤譯을 하기 쉽다. 속기문자 자체가 한글처럼 한音節에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一點一劃 위치표기를 가지고 여러 문자로 解讀하므로 오역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므로 속기문자를 바탕으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내고 속기문자를 푸는데 모든 경우를 다 代入해서 꼭 합당한 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오역한 것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후는 틀리지 않도록 盲點을 분석 是正하는 연습을 하고 처음 속기를 할 때부터 이정도 기록해 놓으면 번문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注意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기록할 일이다. 또한 번문 할 때 유의할 점은 속기문자 하나 하나에 얽매이기 보다는 전체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회의장 분위기와 회의진행상황을 속기에 임할 때 부터 잘 파악해 두어야 속기 및 번문이 수월하다. 또한 번문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漢字誤記다. 한글음은 맞는데 한자가 틀리는 경우 예를 들면 威脅을 危脅으로, 進展을 進前으로, 梗塞을 硬塞으로 한다든지 해서 부주의와 무식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 附隨速記의인 面

가. 文章力

속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속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물 지원 뒷받침해주는 속기외적인 요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속기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들어보면 속기사는 상당한 文章力을 가지고 발언자가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되풀이한 것이 아닌 限重言復言한 발언은 번문시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文法에 맞지 않는다거나 말의 先後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명백히 틀리게 數字나 法條文등을 인용했다면 필요시에는 발언자의 同意를 얻어서라도 이를 맞게 고쳐주는 것(修文)이 속기사의 친절스러운 義務라 할 것이다.

나. 修文의 限界

속기는 속기사 자신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被動的인 것은 하나 속기사가 발언내용을 적절히 판단 기록해서 발언을 再生하는 能動的인 면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번역작업과도 一脈相通한다고 본다. 번역은 原著者が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과 감정까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면 잘된 번역이라 하겠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속기도 발언취지를 가장 완벽하게 再現하여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발언자가 발언내용을 미리 써가지고 그대로 읽지않는한 이를 곧바로 문장으로 옮겨도 좋을만큼 정연한 발언은 찾기 어렵다. 여기에서 速記後 문장화하는데 어느정도 속기사의 적절한 판단에 의한 修文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속기사의 恣意的인 지나친 修文은 도리어 發言意圖를 그르칠 수 있으므로 삼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한계가 미묘한 까닭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수분의 한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발언의도를 최대한 나타내는 前提下에서 발언 내용의 변경이 없이 時制의 불일치나 중복된 말의 정리 또는 명백한 錯誤의 是正 이 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其 他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데 지나치게 亂筆이면 원고 校閱이나 인쇄 植字 과정에도 지장을 주므로 淨書를 해야할 것이 行을 바꾸거나 띄어쓰기 맞춤법 외래어표기에 이르기까지 명소에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믿는다. 또한 회의

과정을 녹음했을 경우 錄音對照時에는 음성을 잘못 들을 수가 있으므로 先入觀을 가지지말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될 것이다. 實例를 들면 國會와 北傀, 仲介와 重大, 事前과 査定등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문장의 前後내용을 잘 살펴서 적절한 낱말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3. 速記人의 精神姿勢

첫째, “일은 사람이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발언자가 아무리 유익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한 속기사의 속기역량 이상으로 회의록이 잘 작성될 수는 없다. 사실 상당시간 발언한 사람이 자기 발언을 一字一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속기사의 發言再生作業으로 그 발언이 다시 술을 쉬고 살아나는 것인데 속기사의 不察로 발언취지를 어그러뜨렸을 때에는 속기의 가치가 실로 의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속기업무에 임하여 誠心誠意껏 청취 및 속기번문작업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미심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찾아보고 발언자에게 확인하는 熱意를 가져야 할 것이다.

머기에서 添言할 것은 속기사가 會議場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몸가짐과 복장에도 신경을 써서 엄숙한 회의장분위기 유지에 一助함은 속기사가 지켜야 할 예의라고 할 것이다.

둘째, 現代社會는 비단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 내지는 平生教育이 제창되는 시대이므로 끊임없이 변천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넘쳐나는 情報과 새지식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속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사람욕심에 누구나 榮華를 누리려고 싶지만 삶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꼭 權力과 名譽, 金錢등의 排他的 所有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各部署의 長이나 市井의 청소년이나 주어진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면 종사하는바 길이 다른뿐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기인도 맡은바 義務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에 有益의 功을 끼쳤다면 그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간혹 자기직업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한번 선택한 職種에 떠들 물겠다는 각오로 임할때 일의 능률과 향상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III. 結 論

이상 속기사가 實務에 임해서 부딪치는 문제와 정신자세에 대해서 筆者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사실 속기란 속기사 자신의 技能과 지혜 경험을 총동원하는 작업인데 千態萬象의 언어를 받아써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一般文字化한다는 것이 보통 至難한 일이 아니다. 속기할 때는 온 신경을 모두어서 발언자의 말을 쫓아야 하니 長時間 속기할 때는 피로감이 엄습할 때마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듯이 평상시에 이러한 諸問題를 인식하여 깊이 省察 磨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日常事의 경우 사람이 하고자 하는바에 따라 改善의 餘地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本人 스스로 처해진 境遇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意慾이 앞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속기의 道에 들어선 속기인 各自도 速記일에

從事하고 있는 한은 天職으로 알고 속기력 향상에 힘쓸 때 實質向上이 되는 것이며 그로써 유능한 속기사가 될 때 속기사와 對의록에 대한 對外的 信賴를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記錄報國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 *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우리가 깊이 희망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비결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통털어서 그것을 우리의 사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계획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全力投球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투입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류해서는 안된다. 인생이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목표한 바를 반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노오만 V. 피일의 적극적 사고방식 중에서)

企業經營에 있어서 速記의 寄與度

柳 舜 台

I. 序

현재 정규직 速記士를 채용, 株主總會를 비롯하여 理事會(重役會議)·勞使協議會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완전 速記, 會議錄을 작성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회의록은 물론 理事會 會議錄까지 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회의록마저 아예 작성치 아니하는 그들 규모의 大企業도 있고, 또 과거엔 각종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해 오다가 최근 들어 속기록 작성 이용의 非效用性을 이유로 속기록 작성을 중단하고 회의 결과만을 요약 정리한 일반적인 회의록으로 바꿔 작성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회의록 작성 방식이야 어떠한 發言이 있고 記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記錄者는 「좀더 빨리 발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까」하고 고민한다. 그래서 그들은 열이면 열 모두가 速記士의 速記術을 대할 때마다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速記術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분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속하고 있는 직종이다.

企業經營에 있어서 속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株主總會·理事會와 같은 각종 회의와 弘報職·秘書職 등

3개 분야이다.

해서 本稿에서는 이들 3개 분야에 국한하여 速記術이 企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찰한 다음 끝으로 문제점은 무엇이며 기업은 속기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速記術活用部門

1. 會 議

사람의 발언 속도와 같은 속도로 기록할 수 있는 속기술은 기업에서는 각종 會議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에서의 각종 회의는 기업 특성에 따라 명칭은 다르나 구성멤버들 기준하여 株主總會·理事會·部署別會議·月例會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株主總會는 정기적으로 年1회 행해지는 것이 통례이며, 나머지 理事會와 部署別會議은 月3,4회 정도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그리고 이들 회의는 모두 會議錄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그 회의록이 國會速記錄처럼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株主總會 會議錄뿐이다. 그 밖에 회의록은 회의의 결과만을 요약한 형식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주주총회 기록이 「기업경영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인데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懷疑의 뜻을 표한다. 심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株主總會는 이미 회의 개최 전에 경영진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메이타와 설명이 첨가된 책자가 출판돼 나왔으며 나머지는 소위 〈총회꾼〉들에 의해 각본으로 짜여진 발언이 있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株總會議錄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사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實務者는 진정 速記錄이 필요한 회의는 株總會議錄이 아니라 理事會會議錄이라고 주장하는 실무자도 있다. 즉, 重役會議과 불리우는 理事會야말로 경명방침 설정을 비롯 회사운영 전반에 걸친 戰略會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株總會議錄을 速記錄으로 작성하면서도 理事會會議錄을 速記錄으로 작성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것이 바로 株總會議錄이 사치성으로 취급받는 이유이다.

그러면 왜 理事會 및 그밖에 一般會議會議錄은 速記錄으로 만들지 않는가?

한 마디로 企業에서의 각종 회의록은 最小量의 文句에다 最多量의 내용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즉, 회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한 회의록이야말로 業務의 신속을 요하는 現代企業經營에 있어서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줄여 生産性 向上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理事：賃金引上은 下厚上薄이 좋음」이라는 식의 회의록과 「○○○理事：賃金引上은 低賃 근로자에게는 후하게 책정하고 高賃 근로자에게는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라는 식의 회의록이 있다면 경우 前者가 간편하고도 알기쉽게 잘 정리된 회의록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단계 낮춰 부서별 회의록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會議錄 작성시 速記의 無用論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속기한 자료를 가지고는 명확 용이한 회의록은 작성할수 있어도 메모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명확한 회의록을 작성할수 없기 때문이다.

2. 弘 報

企業弘報는 크게 社內弘報·對外弘報·弘報企劃 등으로 구분된다.

社內弘報는 社報發送 등으로 종업원의 교양을 높이면서 사원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對外弘報는 社內的 잡음이 외부로 흘러나가 報道化(신문, 방송 등)되는 것을 事前에 캐치, 설득함과 아울러 企業P·R에 역점을 두고, 弘報企劃은 외부 인사초청, 단체 방문 안내 및 경영층의 社內外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이들 홍보업무중 속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직급은 연설문 代作 담당자와 社報取材 담당자이다. 그 중에서도 연설문 代作者가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대개 연설문을 작성할 때 먼저 發言者로부터 연설 내용을 인터뷰, 녹음한 후 다시 녹음을 리와인딩하며 필요 부분을 정리하여 연설문 초안을 작성, 결재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第3의 言論〉이라고도 불리우는 社報(社內報·社外報 등)는 企業P·R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우리

나라 社報 숫자는 月刊·隔月刊·季刊을 포함하여 204種에 이른다 (韓國能率協會조사 79년 1月20日현재)

社報 取材記者들은 정보관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記事를 작성하는 자이므로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들은 發言을 記事化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속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會議錄·작성과 마찬가지로 발언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을 각색,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속기의 목적인 바, 速記術은 있으면 편리할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3. 秘 書

最高經營者 등에 직속하여 기밀의 문서나 용무들 맡아 보는 職務 또는 그 직무를 맡아 보는 사람을 가리켜 秘書라 칭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秘書職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커피 심부름 전화당번과 같은 단순업무직의 비서가 아니라 長의 일정을 계획하고 업무수행 보조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를 지칭한 것이다. 그들은 長의 업무상 일뿐 아니라 사생활에 걸친 신상에 이르기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代辯人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이러한 비서의 역할 중 速記術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長의 代辯人 역할을 할 수 있는 類의 직무이다. 이 경우 비서의 역할은 곧 前述한 바 있는 弘報業務 중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Ⅲ.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會議·弘報·秘書 등의 분야는 모두가 速記術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發言者의 발언 내용을 속기하여 정리하는 요령이다.

속기는 속기문자를 一般文字化 했을 때라야 그 존재가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반문자화 하되 문장 성격에 따라 늘리고 줄여 이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풀워있는 글귀로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大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雄辯家도 그가 발언한 말을 그대로 文字化해 놓으면 앞뒤 문장이 잘 연결되지 않아 읽기 거북하기 십상인데 웅변과 거리가 먼 企業人 내지 각종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翻文해 놓으면 청취할 때는 이해되던 말도 글로 표현해 놓고 보면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은 곧 企業이 필요로 하는 記錄者 혹은 代作者는 速記士가 아니라 速記術을 겸비한 文章家라는 뜻도 된다.

해서 速記士가 企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해당 직무상 임용규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그것도 명실공히 速記士로서 직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으로서의 직책을 가지면서 덤으로 속기사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企業이 요구하는 속기사는 첫째 文章力 있는 자요, 둘째 對内外 弘報活動에 민감한 자질이 있어야 하고, 셋째 編輯技能(社報製作 담당의 경우)을 갖춘 자이다.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타 연구단체나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筆者가 速記術 보유자에 호기심을 갖는 企業에다 速記士 채용을 교섭해 보면 제일먼저 묻는 것이 文章力이 어느 수준이며 편집경험이 어느 정도인

가부터 물어오는 것을 고찰해 볼 때 아직까지 전문속기사로서 기업진출 가능성은 희박하고 他業務를 맡아 보면서 速記業務는 겸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韓國生産性本部)

* * *

속 기 요 금 안 내

1981. 1.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80,000원
녹 음 재 생	"	90,000원
전 문 분 야	"	90,000원
외 국 어 속 기	"	1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출장시에는 상기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오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 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

상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영근 이삭이 되어

楊 激 在

버려진 낙엽모아 이 여백에 치장을 해보라는 편집장으로 부터의 권고를 받은지 1年餘가 지났나보다.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은 터에 친정식구들께 자주근친도 못가보았고 친구 동료들과 대포자리도 변변히 나누지 못한 처지에 처삼촌 외 별초하듯 大小慶弔事에 어찌다 빚는 이 사람에게 무수히 반짝이는 시골 하늘의 별들처럼 감싸주는 溫情이 사랑은 이유없는 것임을 깨우쳐 준다.



속기문화로 생활하면서 그 찬란하고 거대한 마을이 내 청춘을 잠자게 한 신기루였다하면 아는 이 있을까.

이제보면 대단치도 않은 환상이 나의 새파란 미래를 잠들게 했다.

다시 다시 옛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화려하고 장려한 그 마을 대리석 돌바닥을 딛고선채 우리 집구석 연탄고래와 탄재와 손길 알알한 어머니와 안사람이 현실인 것을 터득할 수 있었을까.

부모世業 하나, 부지갱이 한개 물려받지 못한 처지에 바로 머리와 노력과 젊음이 모아져야 재산인 것을 느꼈을까.

지금울 열심히 사는 것이, 피를 토하는 실력배양이 할 일인 것을 생각해 냈을까.

이미 어느 순간도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고 꼭 찬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절감해야 할 것이었다.

해 때 아침이 오고 중천 햇살에 눈부신 한낮, 석양에 달 솟는 세월임을 알아야했다.

이제 不惑의 계절에 닿아 영탄을 읊조린들 간 세월 되돌릴 수 있겠나 다만 이렇게 탄식과 절규를 뒤섞어 표출하는 것은, 悔悟와 무지에 차 겪었던 이삭을 모아보는 것은 그런 낙엽과 파편에 휘말리고 쪼리운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刻癖의 몸부림인 것이다.

無所信, 무기력, 시행착오, 태만은 끝났다.

결단과 근면과 경쟁의 생활속에 집어들고자 한다.

누구의 눈총도, 미안감도, 죄만스러움도 외면한 채 無心하리만큼 나의 일에 매달려 버렸던 보낸 세월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온도가 잘 조절되는 온실을 훌훌 털어버리려 한다.

의무와 책임이 늘 붙어다니는 자유의

차원으로 탈바꿈하려한다.

내가 살아가려는 방향으로 이제 始動이 걸리고 부지런히 操舵해 가는 것으로 만족을 느낀다. 그 결실은 영원히 후손에게 맡길 뿐이다.

나는 씨뿌려 잘 가꾸기만 하면 되고 영근 이삭이 되어 거두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있게 한 존재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 *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關한 모든 問題는 本協會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涉外部 Tel 7802-2472

秋 想



鄭 珠 鉉

J.

가고 있어.

또, 가려하고 있어.

아쉽고 안타까워 보내기 싫은데 떠나려 하고 있구나 이 계절이-

그때 기쁨과 슬픔으로 서로의 손을 꼬옥 잡고 얼굴 붉히며 들어섰던 광화문 ○○집의 기억이 아직 새로운데... 그날의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

세해의 두터지같은 생활에서 햇볕을 보게 된 순간의 기쁨이었지 아니, 사랑하는 친구들의 슬픔도 함께 지낸 얼룩진 기쁨이었어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며 먼지건 거울 한번 더 보고 가슴조이며 첫 회의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의 떨림은 아직 생생한데 이 낙엽은 아니라는구나.

배 이른 꽃샘바람에 방황하며 쫓기던 내 여린 발걸음 머물게 해 주고 이제 예비숙녀로 자라기까지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濶記로 나의 熱과 誠을 다해 보람을 찾으며 살아 보려 했는데 하얀 내 마음에 가을바람만 두심히 지나쳐 버리는구나.

그러면서도 주어진 이 시간을 순간의 편함으로 매듭없이 풀어버린 내 이 게으름을 네가 좀 꾸짖어 주려므나

J.

세해동안의 지하실 생활속에서 맛보았던 우정의 단맛과 쓴맛들
좌절의 쓰라림을 어루만져주고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던 벗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했던 나의 悲哀

그리하며 얻어진 오늘의 시간 이 작업 — 濶記士

지난날 내가 이 속기사라는 명칭을 얻기위해 일시나마 그들을 멀리하고 마음의 창을 닫아야 했던 그 시절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들을 뒤에 남기고 나만이 얻었다는 안도에서 오는 마음의 사치일까?

J.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아무리 현대사회가 動機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흐름이라 해도 우리가 삶의 의미물 이야기하고 배워가면서 성장하던 그날의 한 「페이지」 「페이지」가 결코 뜰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

나 잊을수 만은 없는것은 나의 마음 깊숙한데 웅어리로 되어버린 까닭때문이라 하면 나의 自憐일까.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만 한다는 <좁은門>의 문턱에 서서 어두한 다방에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하다 그만 울어버렸던 날 시험을 일주일 남겨두고 도봉산에 올라 비빔밥을 해먹던 웃을 수 없는 여유

그날의 이야기들과 그들의 행렬을 더디고 오늘의 내가 썼는데...

J. 난 이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싶구나.

지난 기억들에 소리없이 자리잡은 또-얀 먼지를 “혹-” 날려 버리고 그날의 설패림과 다짐을 살며시 일으켜 내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겠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과 함께

「어머! 오랫동안이다. 애 너, 뭐하니?」

「으-응 국회속기사야!」

「그러니-이. 참 좋은 거한다 애」 하는 대화에 익숙해 지면 익숙해 질수록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되고 이 「좋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부끄럼이 없도록 나 자신을 꾸짖고 적려하며 하루 하루 또 하루를 살려는 나를 너의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운 마음으로 오래오래 지켜봐 주렴.

잔잔한 선율을 그리며 멀어지는 낙엽에 살-짝 가리워진 내 마음과 함께.

* * *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の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전대체구좌(532689)를 마련했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500원(年 6,0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第17回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1980. 4. 20

場 所：國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名單 —

◎ 國語速記

- 1級：이정수 · 임혜란 · 이현숙 · 설경자 · 서일순 · 김귀희 · 조경란 · 박순옥
김예경 (計 9名)
- 3級：김향미 · 임정희 · 호영환 (計 3名)
- 4級：정은선 · 조효남 · 윤명국 (計 3名)
- 6級：조숙희 · 주은희 · 유연환 · 이경옥 · 윤혜정 · 박수성 · 안현주 (計 7名)
- 7級：신미숙 · 정숙희 · 정미경 · 이혜원 · 장경숙 · 김영옥 · 이선실 · 김
정선희 · 장현희 (計 10名)
- 8級：양윤선 (計 1名)

◎ 英語速記

- 3級：최현숙 · 박봉심 (計 2名)
- 4級：최혜숙 · 최희균 · 박영혜 · 조미경 · 임란숙 (計 5名)

〈應 試 現 況〉

과목	급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과목	급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국 어	1	35	35	9	영 어	1	1	1	0
	2	19	19	0		2	2	1	0
	3	9	8	3		3	4	3	2
	4	18	15	3		4	6	6	5
	5	6	6	0					
	6	9	9	7					
	7	32	27	10					
	8	4	4	1					
계	132	123	33	계	13	11	7		

用語解説 (14)

研究委員會

- **게리맨더(Gerrymander)**: 一名 選舉區의 黨略的 劃定, 특정의 政黨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選舉區의 區域을 劃定하는 것을 뜻한다. 1812年 美國「매서추세츠」주지사 「게리」가 자신의 所屬 政黨인 共和黨에 유리하게 選舉區의 改革을 強行, 選舉區의 부자연스런 地形이 「그리스」전설에 나오는 「살라맨더」(Salamander, 불도마뱀)라는 괴물을 닮아 反對派가 「게리맨더」라 비유했다.
- **公安軍**: 中共 公安部所屬의 警察組織, 파괴활동과 반란의 진압, 黨內肅清등 主要執行機關으로 統治權의 支柱를 이룬다. 華國鋒 黨主席이 江青등 「四人幫」을 脫權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 **敎條主義(Dogmatism)**: 歷史的 條件이 다른 실제문제의 理論을 공식대로 적용코자 하는 독단적인 態度, 哲學的 宗教的, 공식주의라는 뜻으로 認識되었으나 「中蘇理念論爭」에서 最近에 더욱 부각되었다. 「후루시초프」는 「反蘇分裂主義的 毛澤東冒險主義」라는 對中共 非難에서 毛澤東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非創造的 공식만을 좇는 敎條主義者로 定義했다.
- **多極化時代(Polycentrism)**: 2次大戰後 世界秩序는 美蘇兩極體制가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그후 中共, 西「유럽」, 日本, 第3世界등의 등장으로 世界秩序가 分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어 이를 多極化時代라 일컫는다.

● **록히드事件(Lockheed Scandal)**

1976年 2月 美國上院 多國의 企業小委員會 聽聞會에서 항공회사인 「록히드」社가 판매촉진을 위해 世界各國에 뇌물을 부렸다는 證據가 잡혀 연쇄적으로 國際的 物議를 일으킨 事件. 「록히드」社는 世界 15個國에 2億 200萬「달러」를 뇌물로 제공한 것이 밝혀졌는데 특히 日本에서는 田中首相이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 **메모란뎀(Memorandum)**: 外交文書의 覺書를 뜻한다.

形式을 갖추지 않은 國家間의 合意事項을 표시하기 위해 교환한다.

● **北韓의 四大軍事路線**: 1962年 以後 朝鮮勞動黨이 國防建設強化를 목표로 채택한 軍事方針.

人民軍의 幹部化, 人民軍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의 4項目이다. 과대한 경계부담을 지고 北韓經濟 發展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四人幫**: 毛澤東 死亡後 1979年 10月 中共의 權力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肅清된 江青을 비롯하여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등을 지칭한다. 文革以後 10年間 毛澤東側近에서 四人幫으로 지칭 되어 政治的 주류를 이루던 4名의 指導者가 체포된 것은 林彪事件 이상으로 큰 사건이며 中共의 政治 社會潮流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들에 대한 裁判이 進行中에 있다.

● **聖域(Scantuary)**: 원래 宗教的인 治外法權地帶를 의미했으나 越南戰 당시 美軍이 政治的 이유로 인해 軍事的 공격에서 제외했던 地域을 일컫는다.

● **애치슨發言**: 1950年 1月12日 당시 美國務長官 「딘·애치슨」이 極東防衛線

에 관해 발언한 내용.

그는 美國의 防衛線이 「알류우산」列島~日本~「오끼나와」~「필리핀」을 잇는 線이라 말해 韓國과 臺灣이 제외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發言이 韓國戰爭 유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이도 있다.

㉔ **經濟政策그룹(EPG. Economic Policy Group)**: 美「카터」政權의 擘畫으로 內외 경제정책의 調整을 위해 새로이 설치한 機構.

前「포드」大統領때까지 國內 政策은 經濟政策會가 國際經濟政策의 策定은 國際政策會가 맡았으나 內外 經濟의 效率의인 策定 運營을 위해 새로 EPG를 설치했다. 構成人員은 大統領, 經濟諮問委員會 會長, 財務, 國務, 商務, 勞動의 各部長官과 予算管理局長이다.

㉕ **YH事件**: YH 貿易會社의 工場 女從業員 180名이 공장제지에 항의해 1979年 8月 新民黨本部에 集結, 농성으로 인해 번진 政治事件.

서울市 警機動隊가 8月11日 新民黨會에 대거침입, 강제해산시키면서 쌍방간에 80名의 重輕傷者와 女從業員 1名의 死亡者를 毆다. 新民黨은 이를 非難, 國會籠城을 強행했다.

㉖ **全國人民代表者大會**: 中共 國家權力의 最高機關

代表는 各省 自治區 直轄市 軍隊로부터 選出되며 任期는 4年이다. 立法, 憲法改正, 主席選舉, 國民計劃의 決定, 予算審議와 承認 宣戰布告등의 職權을 지녔으며 每年 1回 開催된다.

㉗ **政經分離**: 政治와 經濟를 분리시켜 각기 獨自의인 政策을 취하려 하는 경향. 주로 日本의 北韓 中共關係에서 비롯되었다. 일명 「日本方式」韓國의 非

敵性共產團과의 交易推進도 이 政策의 한 例.

㉘ **造反有理**: 反逆에는 正當한 理由가 있다는 뜻

造反無道(反逆은 人間의 道에 어긋난다)의 毛澤東式 역풀이. 1939年 毛는 「마르크스」主義는 한마디로 말해서 「造反有理」라 했다. 그후 毛는 홍위병에 보낸 편지에서 「反動派에 대한 反逆에는 道理가 있다고 하는 계급들의 의사를 지지한다고 썼다. 그것은 홍위병의 造反派를 형성시켜 劉少奇를 중심한 당권과 거세에 큰몹을 하게 했다.

㉙ **千里馬運動**: 북한이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목표로 벌이고 있는 노동착취를 위한 운동. 생산성의 향상과 사상공육을 중시하며 작업반, 직장, 공장 등에서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㉚ **最惠國條約(Most favoured nation clause)**: 條約當事國 A, B 중 A가 A國 領域內에서 第3國 또는 第3國民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B國 또는 B國民에게도 부여할 것을 約束한 條約. 1957年10月 7日 韓美友好通商 및 航海條約은 內國民待遇에 관한 규정과 함께 同條款에 「어느 3國民의 國民, 社會, 生産品, 船舶 또는 기타의 對象에 부여되는 待遇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㉛ **카터人權外交**: 大統領就任 以前부터 이미 美國外交가 道義性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카터」는 먼저 蘇聯에 대해서는 反體制 物理學者 「안드레이·사하로프」에 격려편지를 보내고 反體制學者 「우라지밀·부코프스키」와 회담 蘇聯內外의 反體制人士들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의 獨裁者 「아민」을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우루구아이」 「이디오피

아」3國에 대해서는 國內人權彈壓을 이유로 援助削減을 단행했다. 「카터」外交는 「키신저」의 現實外交에 대한 반발이며 자신을 상실한 美國人의 긍지회복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獨裁者가 많은 南美國家들의 반발과 함께 蘇聯의 內政干渉抗議를 받게 되었으며 西「유럽」諸國들도 世界警察復活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 國際石油資本(Major oil Co) : 일명 「메이저」 「엑슨」·「모빌」·「텍사코」·SOCAL(「스탠다드」·「캘리포니아」)·「걸프」(이상美系)BP(「브리티시 페트롤리엄」-英系)·「로열더치셸」(英·蘭系)의 7社를 지칭 「프랑스」石油을 포함하여 8大 「메이저」로 부르기도 한다. 오랜동안 世界石油의 黃金市場 中東에서 原油生産의 99%를 한손에 장악하고 있었으나 1951年 「이란」의 石油資本國有化를 신호로 60年 「이라크」의 유전점수 72年 「이라크」의 石油國有化, 73年 1月부터 「아랍」諸國의 25% 資本參加 73年 5月 「이란」의 石油資産 全面 國有化 등 「메이저」의 權益은 급속도로 産油國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메이저」는 海外에서 유력한 資源供給源뿐 아니라 原油輸送(油槽船·「파이프」)·精油·販賣·石油化學·原子力·石炭·代替 「에너지」등 경합 「에너지」부문까지 손을 뻗쳐 수직적 통합의 전형이 되고 있다.

◎ 飢饉輸出(Hunger Export) : 外貨獲得을 위한 輸出第1主義로 輸入과 國內消費를 억제하며 輸出 위주로 하는 輸出政策. 飢饉輸出이 계속되면 國內 「인플레이」의 원인이 된다.

◎ 無換輸出入(Export or Import Without Draft) : 換에 의한 代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출입·결본·증여

품·구조품·여행자휴대품.

◎ 設備投資(Fixed Investment) : 企業이 일정기간에 機械 裝置 등 生産耐久施設이나 工場建物 등을 취득하는 金額. 既存設備 가운데 마모 세운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과 新規로 追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兩者를 합하여 總設備投資라 하고 後者만을 純設備投資라 한다.

◎ 소프트·론(Soft Loan) : 軟借款.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일환으로 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환성을 갖지 않는 통화인 軟貨(Soft Currency) 즉 피원조국의 통화로 반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제2 世銀이나 미국의 개발차관기금). 한편 硬貨로 반제한다고 하더라도 피원조국의 입장에서 거치기간, 반제기간, 금리 등 통상차관보다 현저히 관대한 경우도 「소프트·론」이라 한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景氣沈滯(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景氣가 침체되어 遊休資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持續的인 物價上昇이 일어나는 것. 常識的으로 景氣沈滯期에 物價水準은 現狀維持 혹은 下落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物價上昇은 好景氣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전에도 때때로 나타났었으나, 이것이 1960年代 後半부터 특히 주목된 것은 先進諸國에 공통으로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발생원인으로 戰後 完全 雇傭과 經濟成長을 위한 팽창주의 정책, 독과점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尙상일로의 物價, 資源供給의 인위적 내지 自然的 애로등을 들 수 있다.

○소 식 란○



- 李東一速記擔當官은 速記課長兼 速記士養成所 副所長으로, 金仁寧編輯第1擔當은 養成所 敎務主任으로, 金永善書記官은 資編課 史料擔當官으로, 崔錫模法制官(3간)은 保社委行政官職務代理로, 徐秉運法制官(3을)은 予決委法制官職務代理로, 姜宗遠速記第6擔當은 國防委法制擔當官職務代理로 各各 任命되었음. (11. 16)
- 8月12日 國會 優秀公務員表彰에서 全海成會員과 金基英監事가 國會議長表彰을, 趙隅石, 韓鍾烈, 蔡康熙會員이 國會事務總長 表彰을 받았음.
- 全海成會員은 80年 1月24일부터 2月13일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南美 地域移民實態調査」를 위한 視察團活動에 隨行한 바 있음.
- 無料速記講習을 東邦·高麗 兩學院에서 실시한 바 第26回 冬季受講人員은 國語479名 英語 160名 計 639名이며 修了人員은 國語 352名 英語 105名 計 457名이고 第27回 夏季受講人員은 國語 167名 英語 64名 計 231名이며 修了人員은 國語 126名 英語 48名으로서 計 174名이었음.
- 會員動靜
 - 退 職
金鎮基 指導委員(建設委行政官), 鄭源道 副會長(資編課 史料擔當官), 安仁榮 理事(速記課長) (11. 16)
韓鍾烈, 徐萬福, 高隆繁, 高錫光, 金京中, 金銀淑會員(11. 30)
李美海會員(8. 17)
 - 移 民
李燦鎔會員 3月17日 美國 「레드포드 시티」로 移民
徐吉泉會員 12月 9日 美國 「로스엔젤레스」로 移民
 - 轉 出
4月 1日자로 韓相九會員이 經濟企劃院으로 轉出
 - 復 職
軍에 服務中이던 姜秀憲會員(3. 28) 金正德會員(8. 8)이 除隊하여 速記課에 復職

○ 軍入隊

安基喆會員(7. 16) 申建鉉會員(8. 6) 朴起晚會員(9. 22)

○ 結 婚

田蘭英會員(2. 9) 趙永昌·金化子會員(2. 21) 羅性洙會員(5. 10) 權寧燦·
楊眞淑會員(5. 17) 李泰鎬會員(8. 31) 洪基杓會員(11. 15) 李承姬會員(12.6)

* * *

原 稿 募 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的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本協會 渉外部 Tel. (7802) 2472

- ◇表紙그림.....가로11cm, 세로 8 cm 정도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回 想 記.....200字原稿紙 15~25枚
-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 ◇詩, 詩調, 散文, 기타提言등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第13回 定期總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日 時：1979. 12. 29. 午前11時
2. 場 所：國會公務員研修院綜合講義室
3. 出 席：在籍會員 170名中 92名出席
4. 附議案件
 - (1) 會務報告
 - (2) 1979年度決算承認 및 監查報告
 - (3) 1980年度事業計劃 및 予算案承認
 - (4) 會員表彰
 - (5) 任員選任

5. 會務報告

1. 理事會運營

78年 12月22日의 第12回 定期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는 78年 12月26日 第96次 理事會에서부터 79年 12月26日 第104次 理事會까지 9次의 會合을 통하여 理事들의 擔當部署決定, 第24回 및 第25回 放學講習實施, 資格審查委員會構成(7人) 研究委員會構成(4人) 速記界編輯委員會構成(4人) 資格審查委員會規程中 改正, 第16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社會團體(서울市 立婦女事業館) 速記講習, 速記界 20號 發刊, 第13回 定期總會 開催等 協會運營을 위한 諸決議를 하였음.

2. 涉外活動

速記界와 관계있는 各界人士를 訪問하여 新年人事를 하고 서울市 山岳聯盟新年 文禮會, 大邱速記學院開講式, 高麗速記學院開講式等 各種 行事에 參席하였음.

3. 會誌發刊

79年 12月25日 速記界 第20號를 發刊하여 會員 및 各界에 配付하였음.

4. 速記講習

	期 間	場 所	講義法式	受 講 人 員	修 了 人 員
冬季講習	'79 1.11~1.31	東邦速記學院 新世界 "	동방·고려 Gregg	국어 : 481名 영어 : 253名	국어 : 302名 영어 : 145名
夏季講習	'79 7.23~8.11	東邦速記學院	동 방 Gregg	국어 : 188名 영어 : 114名	국어 : 139名 영어 : 66名
社會團體 講 習	'79 3.6~8.31	市立 婦女事業館	協 會 短期講習用	55名	講師 : 金永春

5. 資格檢定

回 數	日 字	應 試 人 員	合 格 人 員
16回	'79. 5. 16	국어 : 84名 영어 : 24名	국어 : 46名 영어 : 7名

6. 體育大會

'79年 6月3日 京畿道 城南에 위치한 韓國道路公社球場에서 第9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를 實施하였음.

參加人員 : (來賓 : 48名, 會員 : 124名, 家族 : 73名)

綜合優勝 : 靑龍팀

7. 기 타

회원의 회비납부 편의를 위하여 대체구좌(532689)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정기보고서등의 일반업무도 적절히 처리하였음.

6. 議決된 案件

(1) 1979年度 決算

세 入			세 出		
관 람	예 산 액	결 산 액	관 람	예 산 액	결 산 액
기 본 수 입	298,000	324,306	회 의 비	436,000	363,500
월 회 비	288,000	318,306	점 기 총 회	300,000	300,000

입 회 비	10,000	6,000	회 의 비	136,000	63,500
사 업 수 입	3,440,000	3,635,000	경 상 비	178,000	169,630
방학강습수수료	3,000,000	3,443,000	사 무 비	78,000	72,030
자격검정수수료	440,000	192,000	활 동 비	100,000	97,600
찬 조 금	500,000	638,000	수 용 비	5,000	0
잡 수 입	280,000	297,876	사 업 비	3,244,000	2,097,500
이 월 금	1,688,648	1,688,648	방 학 강 습	2,116,000	1,691,000
			속기경기대회	345,000	0
			자격검정시험	333,000	86,500
			학교 및 사회	100,000	20,000
			단체속기강습	300,000	300,000
			체 육 대 회	478,310	427,980
			업 의 비	100,000	98,440
			업 외 활동	378,310	329,540
			회 지 발 간	145,000	0
			연 구 비	240,000	232,800
			관 공 비	1,480,338	776,290
			예 비 비		2,526,130
			이 월 액		
계	6,206,648	6,583,830		6,206,648	6,583,830

〈監査報告書〉

定款 第29條의 규정에 의거 1979年 12月19日 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結果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9. 12. 29

監事 金 基 英
" 河 大 煥

(2) 1980年度 予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관	항	예	산
기	본 수 입	420,400		회	의 비	532,000	
월	회 비	410,400		정	기 총 회	400,000	
입	회 비	10,000		회	의 비	132,000	
사	업 수 입	3,940,000		경	상 비	190,000	
방	학 강 습	3,400,000		사	무 비	90,000	
자	격 검 정	540,000		활	동 비	100,000	
찬	조 금	600,000		수	용 비	5,000	

會 務 日 誌

- 79.12.18 第 103次 理事會
- 12.25 “速記界” 第20號發刊
- 12.26 第 104次 理事會
- 12.29 第13回定期總會(場所：國會公務員 研修院)
 - 1.1979年度 決算承認
 - 2.1980年度 事業計劃 및 予算(案) 承認
 - 3. 任員選任
 - 4. 其 他
- 80. 1.14 第26回 速記無料講習開講
 - 受講人員：國語速記 479名
 - 英語速記 160名
- 1.23 法人定期報告書提出
- 2. 2 第26回 速記無料講習修了
- 2. 7 第 105次 理事會
 - 會費引上(月 500원 7 月부터 施行)
- 4.10 第 106次 理事會
- 4.20 第17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實施
 - 應試者：國語速記 123名
 - 英語速記 11名
 - 合格者：國語速記 33名
 - 英語速記 7名
- 7.18 第 107次 理事會
 - 速記料金引上(1980. 1. 1 施行)
- 7.31 第27回 速記無料講習 開講
 - 受講人員：國語速記 167名
 - 英語速記 64名
- 8.16 第27回 速記無料講習修了

編輯後記

80年代의 序幕을 여는 올해는 激動의 연속이었다. 무릇 國家나 개인이나 逆境을 극복하면서 成長하는 것이니 이 國家의 試鍊이 마치 좋은 試問을 얻기위해 鎔鑪에 불을 활활 지피듯이 새 歷史進運에 비약적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

大變轉의 渦中에서 여러 先輩 동료회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났다. 그러나 생각하면 生者必滅이요 塞翁之馬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轉機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의 심정이리라. 이번 號에도 값진 原稿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會員諸位의 健安을 기원한다.

- 良 -

速記界

〈第21號〉

1980年 12月 25日 發行

發行人 鄭 源 道

編輯人 河 良 培

社團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6

〈非賣品〉

學 院 案 內

♣ 創立 32 周年 !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英文速記科

- | | |
|------------------|------------------|
| 1. 本 科..... 4 個月 | 1. 本 科..... 3 個月 |
| 1. 研修科..... 1 年 | 1. 研修科..... 6 個月 |
| 1. 資 格..... 高卒以上 | 1. 資 格..... 高卒以上 |

修了後

立法院,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事,
留學時의 筆記 및 알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65) 4266

學 院 案 內

한글速記科

英文速記科

- | | |
|------------------|------------------|
| 1. 本 科..... 3 個月 | 1. 本 科..... 2 個月 |
| 1. 研修科..... 9 個月 | 1. 研修科..... 4 個月 |
| 1. 資 格..... 高卒以上 | 1. 資 格..... 高卒以上 |

修了後

立法院, 官公署, 通信社, 大使館, 外國銀行, 外國人商事, 移民,
留學, 高級秘書 等

官認 高麗速記學院 TEL. (72) 3672

(종로2가 Y M C A 옆 장안빌딩 4 층)